

함평,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탄력’



국회 본회의서 예산 통과…국비 20억 등 사업비 424억 확보 건축기획·인허가 등 사전절차 착수…2029년 개원 목표 추진

함평군이 대한민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에 성공하며 미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8일 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안전교육원 건축기획·인허

가 등 사전절차 이행비 20억5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군은 총사업비 424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교통 안전교육원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부터 이개호 국회의

원, 전남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온 노력의 결실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에 확보된 20억5000만원으로 건축기획, 교통·환경 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기획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원은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습·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 연간 수만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핵심 공공시설이다. 해당 교육원은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원 개원 시 교통안전 전문 인력 양

성, 지역 교통안전 연구·실험 기반 확충, 연수시설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의 군수는 “교통안전교육원이 조속히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베이비 마사지”로 건강한 아이 키워요” 나주시가 운영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 아기 성장 발달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초보 부모들의 정보 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최근 올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베이비 마사지 교실은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총 10회 진행했으며 생후 3개월부터 8개월까지 영아와 산모, 보호자 등 26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 ‘현장·실행 중심 혁신 행정’ 성과 입증

농업농촌·보건복지·문화관광 등서 46개 표창 수상 윤병태 시장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 건설 매진”

나주시가 올 한 해 동안 각종 평가에 서 46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현장·실행 중심 혁신 행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에서

주요 상을 받으며 ‘농업 선도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2025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농수산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

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 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